

쏟아지는 햇빛, 담으면 소득이 됩니다.

- 햇빛소득마을의 대표 사례인 구양리 햇빛두레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성공요인을 짚어보는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 추경에 확대 반영된 햇빛소득마을 70개소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지역중심의 에너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5.15일(금)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대표적 마을 단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인 구양리 햇빛두레 마을 태양광을 방문하여 발전설비 현장을 시찰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은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77차 일정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기관인 에너지공단과 구양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의 성공요인을 짚어보는 등 향후 마을단위의 태양광 소득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5.15(금), 13:00 ~ 15:00 / 구양리 햇빛두레 마을태양광(경기 여주)
- 시설현황: (설치용량) 998kW ('23.10.27, 여주시 발전사업허가)
(참여인원) 70가구 120명 / (상업운전) '24.1월~
- 참석자 : (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지자체) 구양리 이장 등
(유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00GW를 달성하는데 있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확산 전략**의 대표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둘째는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 대규모 발전소의 계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지역단위 기반의 발전시설**을 보급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성공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 함께한 구양리 및 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은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요인과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향후 햇빛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금번 추경에도 햇빛소득마을 700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 16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2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27 예산안 편성시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김의영 (044-214-2570)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문 (krrard419@korea.kr)

